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손소벽 막달레나 (1802-1840)

서울의 교우 가정에서 태어난 손소벽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아버지가 순교하고 어머니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17세 때 최창흠(崔昌洽)과 혼인한 그는, 1821년 전국에 콜레라가 퍼지자 남편과 함께 대세를 받았는데, 성체를 받아 모신 이후부터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였다.

기해박해가 한창인 1839년 6월, 손소벽은 가족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때, 사위 조신철(趙信喆)이 북경에서 가져온 성물 때문에, 포청에서 세 차례의 주리와 260대의 태장을 맞는 혹형을 당하고 형조에서도 세 차례의 형문(刑問)을 받았다. 마침내 1840년 1월 31일, 5명의 교우와 함께 당고개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당시 나이 39세였다.

성화_윤여환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부활 제6주일 • 생명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0,25-26.34-35.44-48

화답송 시편 98(97),1,2-3ㄱㄴ.3ㄷㄹ-4(◎2 참조)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

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2독서 1요한 4,7-10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5,9-17

영성체송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코르넬리우스와 카이사리아



카이사리아 유적지

사도 10,1-2에 등장하는 코르넬리우스는 이방인이지만 신심이 깊은 인물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대장”으로서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코르넬리우스를 눈 여겨 보시고, 그가 살던 카이사리아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야포에 머물던 사도 베드로도 카이사리아로 가게 하시는데, 이 모두는 코르넬리우스를 기점으로 이방인 선교의 첫 걸음을 떼게 하 시려는 계획에서였습니다.

카이사리아는 현 이스라엘의 정치 수도인 텔-아비브와 그곳에 자리한 야포항에서 북쪽으로 45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갈릴래아 북부의 카이사리아 필리피(마태 16,13-20)와 구분하려고 ‘카이사리아 마리티마’, 곧 ‘해변의 카이사리아’라고도 일컬어지던 곳입니다. 카이사리아를 세운 이는 유대 임금 헤로데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그 땅을 헤로데에게 하사하자, 헤로데는 기원전 25년부터 13년까지, 12년 동안 공사하여 아름다운 항구를 짓고,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토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토 카이사르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으로 카이사리아라 명명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야포에 있었는데, 야포는 구약 시대부터 항구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사도 10장에 따르면, 베드로는 야포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환시를 보게 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함 짐승이 뒤섞인 아마포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와,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환시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함 것은 먹을 수 없다며 거부하자,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15절)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는 정결과 부정함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곧 선민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베드로는 카이사리아로 올라가 신심 깊은 이방인 코르넬리우스를 만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를 교회에 받아들입니다(사도 10,1—11,18). 다시 말해, 할례 없이 이방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세상이 되었음을 알린 것입니다.

이후 카이사리아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세기에 카이사리아 교회는 주교좌가 되고, 3세기에는 신학 연구의 중심지가 됩니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곳에 교리학교를 세우고, 초대 교회 신학의 중심지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남긴 저술가였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사후 벌어진 ‘오리게네스주의 논쟁’으로 많은 본문이 소실되고 맙니다. 하지만 1930년경부터 교부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는 교부 신학의 아버지로 재평가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의 저자이자 오리게네스의 제자였던 에우세비우스는 카이사리아 태생으로 315년경 그곳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현재 카이사리아에는 헤로데가 만든 도시의 유적만 남았지만, 이방인이었다가 하느님의 백성 안에 ‘접붙여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해 주는 성지입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2장 길 위의 낯선 이 (사회적 약자) ⑥ - 인간관계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새로 시작하기

이번 주부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오늘날 인간 관계를 안내하는 몇 개의 빛줄기, 곧 ‘새로 시작하기’(77-79항) ‘국경 없는 이웃들’(80-83항) 그리고 ‘낯선 이의 탄원’(84-86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와 관련해, 우선 회칙은 (1) 누구에게나 항상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음을 밝히면서, 그것을 “더 심한 증오와 원한을 조장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온갖 역경의 아픔을 짊어지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될 기회, 타고난 형제애 의식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쇄신하고 지원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공헌하자고 권고합니다. (2) 또한 아무리 “폭력적인 자들, 맹목적인 야심가들, 불신과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의 악한 정신이 횡행하고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이들이 “정치나 경제를 그들의 권력놀이 투기장”쯤으로 간주하더라도,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쓰러진 이들을 포용하고 통합하여 일으켜 세우는 노력에 있어 항구적이며 지칠 줄 모르는 하나의 국민, 하나의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염원으로 선한 정신이 명령하는 대로 자신을 맡기자고 호소합니다(77항).

둘째, 선한 정신을 따르게 되면 (1) 섬세한 돌봄과 관심을 “아래에서 시작하고, 구체적이며 지역적인 수준에서 행동하며, 국가와 세계의 가장 먼 곳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난관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그것은 성장의 기회이지 묵인(默認)으로 이어지는 체념의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2)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에게 쓰러진 이웃을 돌볼 여관과 그 주인이 있었듯이, 우리의 돌봄과 행동에는 언제나 연대할 이웃과 건전한 돌봄의 사회 제도와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3) 한편, 회칙은 헛된 내부 싸움과 지속적인 대결을 거부하며 낙심(落心)을 멈추고, 대신 우리의 범죄와 냉담 그리고 거짓을 인정하자고 권고합니다.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할 새 삶에는 반드시 보속(補贖)과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화해의 성사는 새 출발의 전제입니다(78항).

셋째,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치하(致賀)나 사의(謝意)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무상의 노력은 이제 의무(duty)가 됩니다. 이 같은 노력은 자기의 삶에서 또 하느님 앞에서 훌륭한 배상(satisfaction)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하느님의 모상(模像)인 이웃에게 직·간접으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그 가해에 대한 배상이 됩니다. 결국 세상 곳곳의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밀착하여 그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 모두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입니다(79항). ☸

‘어여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유럽 중세시대는 성당과 수도원 건설 및 미술품 제작 등 그리스도교 문화가 절정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과 백년전쟁 같은 캄캄하고 긴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흑의 터널을 지나 15세기 중반에 이르러 프랑스는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세상의 고통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모님께 위안을 받고픈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15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그라스의 성모>는 너무나 어여쁘고 상냥한 모습입니다. 조각 하단에 ‘그라스의 성모’(Notre Dame de Grasse)라 새겨졌는데, 이는 프랑스 남동부 ‘향수의 도시 그라스’(Grasse)가 아니라, ‘은총의 성모’(Notre Dame de Grâce)가 잘못 새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꽃향기가 나는 듯한 모습이어서 향수의 도시 그라스가 어울리기도 하지만 말이지요. 현재 이 조각은 프랑스 남서부의 대도시 툴루즈(Toulouse)에 있는, 옛날엔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이던 ‘오귀스탱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천상모후의 관을 쓴 어여쁜 성모님은 푸른색, 노란색, 베이지색 등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의 드레스와 모피로 된 두꺼운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본래의 채색이 꽤 잘 남아있지요. 성모님은 오른팔로 바닥에 떨어질 듯한 미사 책을 잡고, 양손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뻗쳐나가려는 아기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우측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좌측으로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조각가는 무슨 이유로 성모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중에 겪게 될 고통을 감지하신 성모님이 아들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에서 보호해주고픈 애절한 모성애를 표현한 건 아닐까요?



<그라스의 성모>, 15세기 중후반, 석회석에 채색, 툴루즈 오귀스탱 미술관(프랑스)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겸허히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 절대적 순종과 버거운 운명을 받아들인 용기는 그녀를 ‘예수의 어머니’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기쁨과 영광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성숙해갔습니다. 천상모후의 관을 쓰는 영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과 엄마의 근심을 전혀 모르는 듯 그저 천진난만하기만 합니다. 아니, 어쩌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자의 어머니라는 역할을 받아들인 충실함과 아들을 보호하고픈 인간적 모성애가 미세하게 충돌하고 있어 더욱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 조각은 프랑스 중부 부르그뉴 지방에 퍼져있던, 사실적이고 이상적인 표현의 영향을 받은 어느 무명 작가의 작품입니다. ‘부르그뉴 조각’의 사실주의에 프랑스 남서부 랑그도크 지방 특유의 서정적이고 우울한 감성과 절제된 우아함이 더해져서 짙은 애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어여쁜 마리아님! 지치고 어리석은 제 영혼은 당신의 겸손과 용기, 끝없는 사랑에서 위로와 위안을 받습니다.’ 🙏



교구
소식

2024 DMZ 평화의 길 도보순례

날짜 5/24(금)~26(주일) 회비 15만원
코스 김포-파주-연천-철원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차수별 40명 선착순)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예비신학생 모임

고등부	5/12(주일) 13:30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중등부	5/19(주일) 10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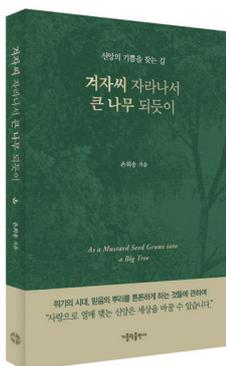
의정부교구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부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트럼펫, 타악기
일시 5/19(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자유곡) 문의 010-8419-0073

전신자 성경 읽기 5/5(주일)~11(토) : 루카 10,38-11,13  5/25(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도서
소개



신앙의 기쁨을 찾는 길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

손희송 주교 지음 | 200면 | 14,000원 | 가톨릭출판사
문의 | 02-6365-1864, 02-6365-1851

“단 한 번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했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과의 '채널'이 계속 열려 있게 되어, 그분의 부르심을 더 분명하게 듣고 그분의 손길을 더 확실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튼실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될 때 우리 존재의 내밀한 곳에 계시는 하느님 사랑의 영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

일시: 5/15(수) 09시~17:30
장소: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남양주 다산지대로 91)
미사: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
강사: 이재화 안셀모 신부, 김경진 베드로 신부
회비: 5,000원 (티켓 구입)
문의: 010-2127-0032, 010-9697-9004

의정부교구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찬양과 치유기도회
일시: 5/10(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2127-0032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및 토요낫 치유 대피정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 안수 (중식무료)
일시: 5/6(월) 10시~16시
5월 토요낫 치유 대피정
일시: 5/11(토) 12시~17:30, 미사 안수 (중식무료)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2024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캠프

일시: 8/5(월)~7(수), 8/7(수)~9(금) 15시
대상: 청소년부(중고등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접수: 5/31까지 [선착순 80명], 회비: 23만원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천마 성당 성모성월 하루 피정

일시: 5/6(화) 09:30~16:30
장소: 천마 성당 대성전
강사: 신상현 야고보 수사(음성 꽃동네)
김재덕 베드로 신부(대전교구)
파견미사: 하정호 안드레아 신부
회비: 티켓 5,000원 (점심 제공)
문의: 010-9770-0146 박테레사

5월 청년 주말 피정

일시 5/25(토) 15시 ~ 26(주일) 15시
장소: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서울 오류동)
문의: 010-4037-1609 / 대상: 미혼 청년
카톡채널 빛 더하기~예수수도회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5/11(토) 10시 풍동 성당
5/18(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제22회 젊은이 전국 연합 성령축제

성령 강림 대축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느님을 느끼고 싶은 가톨릭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5/19(주일) 10시~17시
장소: DMZ 생태관광지원센터(파주시 임진각)
회비: 1만원 (점심식사 포함)
문의: 010-9574-6469 의정부성령쇄신 청년회장

낙태 후 화해 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일시: 5/17(금)~19(주일) [회비 없음]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문의: 010-6637-1366 변 바올라 수녀

부부나들이 피정

일시: 5/25(토) 14시 ~ 26(주일) 17시, 아론의 집
회비: 20만원 (1부부 / 비신자 참여 가능)
계좌: 신한 131-022-218086 가정선교회
(입금 후 연락)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외출 피정

개방의 날 무료 피정: 5/3(금), 매월 첫(금) 10시~15:30
다네이 영성수련 피정: 5/10(금)~12(주일)
은인 피정 및 성모성월 기념미사: 5/18(토) 10시~17시
대침묵 피정: 6/21(금)~23(주일)
문의: 02-990-1004
성지순례 - 성 김대건 발자취를 따라서:
5/22(수)~24(금) [서울-광주]
문의: 062-571-5004

평화 학교 -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1차: 5/18(토) 15시 ~ 19(주일) 13시
2차: 6/22(토) 15시 ~ 23(주일) 13시
3차: 7/20(토) 15시 ~ 21(주일) 13시
4차: 8/24(토) 15시 ~ 25(주일)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내 피정의집
회비: 8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 (문자)

매일 첫화요 오후 피정 - 토당동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5/7(화), 6/4(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덕양구 호수로 76-13)
강사: 장희성 프란치스코 신부(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9585-6283 (무료 피정)

2024년 의정부교구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나의 마지막 부름에 응답하여라(메세지 73)
강의1) 김대호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강의2)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
일시: 5/9(목) 09:20~17시 / 주엽동 성당
파견미사: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와
마리아 사제운동 사제단
준비물: 미사준비, 목주, 점심, 생수, 개인컵
문의: 010-5112-2600, 010-5405-7849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영혼 상처의 특효약은 통회이다.
통회 눈물은 내 영혼을 씻기 때문이다.”
일시: 5/11(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성가: 고영민 / 회비: 1만원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4후기(주간)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
접수: 5/27(월)~6/7(금), 전형일: 6/22(토)
문의: 02-705-8668, gsot.sogang.ac.kr

2024후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과정(4학기)
전공: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접수: 4/29(월)~5/12(주일)
위치: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성의회관 (서울성모병원 내)
문의: 02-3147-8781, welfare.catholic.ac.kr

힐링 드로잉 수강생 모집 - 바오로딸

성경 속 식물 컬러링 북
일시: 5/13~6/3, 매주(월) 14시~16:30 [총4회]
대상: 노인대학 봉사자, 관심 있는 분
회비: 5만원 (교재 포함)
문의: 031-875-7004 의정부 바오로딸 서원

민들레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모집

근무형태: 전일제 1명 (정규직)
 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곡로 42
 모집 : 5/31(금)까지 [서류접수 후 면접]
 문의: 031-947-9047

www.caritasdaegun.or.kr

※ 자세한 내용은 대건카리타스 홈페이지 참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영선반 직원 채용

부서: 고객지원팀 영선반 (실내외 작업)
 근무: 주5일 근무 (주40시간, 08:30~17:30)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조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4년 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접수: 4/29(월)~5/12(주일)
 면접: 5/31(금), <https://ged.catholic.ac.kr>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분야: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조

꼬메스 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6/7(금)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8/6(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연합 성가 발표회

호평동 세실리아 성가대 및 가톨릭 다운 합창단
 모든 이와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
 성가, 가곡, 팝, 포크송, 트로트 등
 일시: 5/24(금) 19:30 / 호평동 성당 (무료 입장)
 문의: 010-7740-9663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일시: 5/23~25(성모의밤), 10/2~4, 10/25~27, 11/1~3, 11/15~17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구반장 맞춤피정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 상담
 시간: 10시~16시 (월~금) / 문의: 02-990-9366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6/27(목)~7/6(토) 동부지중해크루즈 성지순례 (549만원)
 7/12(금)~23(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460만원)
 8/26(월)~9/6(금) 튀르키예, 그리스 (485만원)
 9/2(월)~9/13(금) 발틱3국, 폴란드 (49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6(월) 튀르키예, 그리스 (10일, 409만원) 동반자 할인
 9/23(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2일)
 9/24(화)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동반자 50만원 할인
 10/8(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485만원)
 10/21(월) 산티아고 107km 도보 순례 (12일, 475만원)
 12/2(월) 미서부,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13일, 760만원)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연중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5/22(수)~24(금), 6/21(금)~23(주일), 9/2(월)~4(수)
 추자도포함: 5/26(주일)~29(수)
 제주성지순례: 6/16(주일)~19(수)
 접수: 064-796-4182, 02-773-1455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5/17(금)~20(월), 5/31(금)~6/3(월), 7/19(금)~22(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 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피정: 5/27(월)~29(수), 6/10(월)~12(수), 6/22(토)~24(월)
 성지순례피정: 5/19(주일)~22(수) 6/3(월)~6(목), 6/15(토)~18(화)
 우도해변포함: 7/25(목)~28(주일)
 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5/18(토) 14시~17시	경기도 군포 수녀원	010-4889-1830
	한국외방선교회	6/2(주일) 11시 / 한반도에 머물길 가까운 교회의 인재		010-8715-2846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5/11(토) 13시	명동 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성심수녀회	5/18(토) 14시~17시	성심수녀회(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성심수녀회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재속회에 관심 있으신 45세 이하 미혼여성 / 전화상담		010-9437-5903

주교관과 주교 지팡이

지난 5월 2일에는 제3대 의정부교구장이신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의 착좌 미사가 있었습니다. 착좌 미사 중에는 전임 교구장님으로부터 목자 지팡이를 받는 예식도 있었지요. 보통 주교님들이 전례를 집전하실 땐, 그 품위를 드러내는 몇 가지 특별한 복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주교관과 목자 지팡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교관(主教冠)은 주교의 특별한 품위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주교가 전례를 거행하며 썼던 두건에서 기인합니다. [미트라](Mitra)라고 불리는 주교관은, 그 명칭이 고대 페르시아 전설에 등장하는 빛과 진리의 신 '미트라스'(Mitrás)에서 기원합니다. 미트라는 4세기에 처음 언급되지만, 본래 주교 복장을 가리켰던 건 아니고, 하느님께 봉헌된 동정녀들이 착용하던 모자였습니다. 현재 주교관의 기원이 되는 것은 [필레올루스](pileolus)라는 낮은 반구(半球) 모양의 머리덮개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던 이 모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성직자의 모자가 되었고, 교계제도의 품계에 따라 색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주교관의 그림은 11세기의 것인데, 그때 흰색의 원추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모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주교관 뒤에 달린 두 개의 띠는 모관을 고정하기 위해 턱 아래로 묶을 필요가 있던 옛 관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장'(牧杖) 또는 [바쿨루스](Baculus)라고 불리는 목자 지팡이는 주교의 품위와 관할권을 상징합니다. 제4차 톨레도 교회회의(633)에서는 목자 지팡이가 주교 권한의 상징이라고 공식 천명하였습니다. 9세기 갈리아(오늘날 프랑스 지역) 지역에서는 주교들의 직분을 드러내는 공통 표지가 되었습니다. 13세기에 들어 목자 지팡이의 끝이 나선형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선형으로 마감한 부분에는 십자가를 진 어린양이나 용과 맞서는 미카엘 대천사가 장식되었습니다. 또한 지팡이 끝에 금실과 레이스와 술로 장식한 [수다리움](sudarium, 수건)을 매다는 관습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팡이에 이 같은 수건을 매단 이유는 주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고, 손의 땀으로 지팡이가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사들은 비단 천으로 감싸 목자 지팡이를 붙잡곤 합니다. 주교들은 목자 지팡이를 충만한 통치권의 상징으로 주교 예식, 서품식, 행렬, 장엄 축복에 사용하지만, 장례 예식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구의 새로운 목자로 착좌하신 손희송 주교님께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보호가 함께하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2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2>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9:00 토요일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자

5월 03일 필립보 장중환, 이정우
5월 08일 보니파시오 유승태

전례

▣ 5월 성모 성월 묵주 기도

5월 한 달 동안 매일 오후 6시에 본당 성모당 앞에서 묵주 기도를 봉헌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5일 일요일 유아세례와 혼인성사

4월에 3구역으로 전입은 정봉열 안셀모 형제의 아들 정수민 군이 9시 미사 중에 유아세례를, 23년도 부활에 세례를 받은 정승운 토마스 군과 정가영 플로라 양이 11시 미사 중에 혼인성사를 받습니다. 행주성당의 모든 분 들이 함께 축하드리며,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선교 사제 후원 2차 헌금

오늘은 해외 선교 사제를 후원하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5월 병자 영성체

새 교구장님의 착좌식 관계로 일주일 연기합니다.
일 시: 5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성모의 밤

일 시: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저녁 7시 미사를 성모의 밤 행사 관계로 오후 6시로 한 시간 앞당겨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당의 날 행사

5월 26일은 본당 설립 1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다음 주에 공지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4월 22일 ~ 4월 28일)

▣ 교무금, 주일헌금, 2차헌금

교 무 금 4건 560,000원
주 일 헌 금 1,029,000원

▣ 감사 헌금

왕진택 100,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5월 05일	주송자	오정화(아네스)
		양경희(루시아), 류은희(소피아)
5월 12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김남일(미카엘), 배현숙(헬레나)

- 복음 말씀 -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